

내 마음속 엄한 순경

외할머니 집으로 올라가는 길옆으로 시냇물 물이 사납게 달려 내려가며 바닥을 버르잡고 있었다. 물살에 허리가 부러진 어린 까마중 하나가 탁류에 머리를 감고 있었고, 이장님 댁 마당에는 감또개 여러 개가 나뉘고 있었다. 어머니 말씀대로 간밤에 내린 비가 꽤나 건넌 모양이었다. 어젯밤 갑자기 내린 폭우 때문에 홀로 계신 할머니가 걱정이 되신 어머니가 전화를 해 보셨단다. 통화를 하는 내내 할머니께서 외손주가 보고 싶다 하셨다기에 오랜만에 외할머니 댁을 찾는 길이었다.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던 어릴 적에는 무척 자주 갔었다. 특히 방학이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꼭 다녀가곤 했다. 외할머니 댁은 마을의 가장 윗부분에 자리했다. 어릴 적에는 가뿐하게 오르던 그 가풀막이 이제는 제법 힘에 겹다. 턱까지 차 오르는 숨을 겨우겨우 가누며 양철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섰다.

“할머니! 저 왔어요!”

부르는 소리에 안방 문이 삐걱 열리면서 외할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문밖에 선 이가 누군지 영 가늠이 되지 않으셨는지 주섬주섬 안경을 찾아 쓰셨다. 이내 할머니는 함박웃음을 지으시며 “아이고, 우리 외손주 왔구나!” 소리를 지르셨다.

요 몇 년 사이에 할머니의 건강이 많이 상하셨다. 특히 오른쪽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셔서 이제는 마을 경로당에 한번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신다. 하지만 늙고 병든 건 할머니의 몸뿐 저 꼬장꼬장한 고집은 좀처럼 늙지를 않는 모양새다. 아무리 말려도 손주도 손님이니 된장찌개라도 대접해야겠다며 기어코 부엌으로 나가셨다. 곧 맛있는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 왔다. 고소하고 간간한 그 냄새를 맡으며 방을 휘 둘러봤다. 할머니의 방은 변한 게 거의 없었다. 마치 방 전체를 타임캡슐로 밀봉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다. 손때 가득 묻은 까만색 목단 장롱도, 자물쇠 대용으로 문고리에 걸어 둔 낡은 손가락도 그대로였다. 하다못해 손주가 밤에 화장실 가기 무서울까 봐 사 두셨던 양은 요강도 그대로다. 아마도 무릎 때문에 운신하기가 쉽지 않으시니 이제는 당신이 사용하시는 모양이다. 하긴 집주인인 할머니가 하나도 안 변했는데, 집 안이 변하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 외모나 건강이 변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깐깐한 성격과 고집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온순해진다고 하는데, 우리 할머니께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오히려 시간의 더께가 얹힐

수록 더 꼬장꼬장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가끔씩 들러서는 말동무도 해 주고 쌀도 가져다주고 하는 모양인데, 할머니께서는 친절을 받기만 하는 것도 도둑질이라면서 평소 만들어 두셨던 무짬지나 오이지 따위를 내놓으셨단다. 요새는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난다며 아무리 손사래를 쳐도 기어코 양손에 한 자루씩 들러서 돌려보내셨다고 하니,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회복지사분들의 난감한 처지가 눈에 훤히 보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할머니의 이런 고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일종의 도덕적 결벽증이랄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선의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는 것을 좀체 견디지 못하셨다. 불현듯 초등학교 2학년 때의 일이 떠올랐다.

“할머니 그 일 기억나요?”

“무슨 일?”

“왜 한 30년 전쯤에 박 씨 할아버지네 복숭아밭에서 있었던 일 말이에요.”

그날은 마을 밖 개천으로 나가 물놀이를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하다는 박 씨 할아버지의 부탁으로 갑자기 할머니께서 품을 팔러 가시게 되었다. 내 땅이 없는 시골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할머니도 틈틈이 남의 밭에 품을 팔러 다니곤 하셨던 것이다. 울고 불며 물놀이를 가자고 생떼를 부렸지만, 할머니는 ‘내가 아쉬울 때는 일 시켜 주오 하면서 남 급할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건 도리가 아닌 거여’ 하시면서 밭으로 가 버리셨다. 그날은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비 오듯 흐를 정도로 더웠다. 그런 날씨에 좁은 사다리 위에서 복숭아를 따내는 일이 얼마나 고생스러우셨을까. 하지만 그런 할머니의 처지를 살피기엔 난 너무 어렸다. 나는 일하는 할머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물색없이 ‘강에 가자’를 반복했다. 할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결눈질 한번 하지 않고 일만 하셨다. 오히려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런 내 모습이 보기 안쓰러웠는지 복숭아 한 알을 건네 주셨다.

“아가. 이거 가지고 저 짝 그늘에 앉아서 먹거라.”

쉬지 않고 강타령을 불러 댔던 탓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던 나는 얼른 받아들였다. 내내 나를 괴롭혔던 실망감과 짜증이 어느 정도 달아나는 순간이었다. 달콤하게 입안으로 퍼지는 과즙을 상상하니 행복한 기분마저 들었다. 하지만 나는 갑자기 머리 위에서 터지는 벼락 소리에 깜짝 놀라 복숭아를 놓쳐 버렸다.

“형님! 그런 거 주지 마소! 그게 어디 형님 겁니까? 밭 주인 거지! 병희 너 이

놈, 그거 어여 제자리에 놓거라. 너 커서 도둑놈 될 거여? 어여 내려놓지 못하?”

복숭아밭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냉랭해졌다. 단지 벗의 손주에게 친절을 베푸시려다 절도 교사범 꼴이 된 동네 할머니는 속이 무척 상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의 평소 성정을 알기에 그냥 눌러 참는 눈치였다. 괜히 나 때문에 일이 터진 것 같아 죄스럽고 민망한 기분이 들었다. 구석에 앉아 눈치를 보고 있다가 결국엔 터덜터덜 집으로 걸어 내려왔다.

“그때는 할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요. 목마른 손주가 복숭아 하나 얻어먹겠다는데, 그냥 모른 척 눈감아 줄 수도 있었잖아요?”

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내뿜으셨다.

“그러. 니가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네. 사실 그때 내 맘도 편치는 않았어. 하지만 병희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마음속에 순경 한 명을 항시 두어야 하는 법이여. 무슨 말인지 알어?”

“네. 알다마다요. 할머니의 ‘마음속 순경’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내가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너 마음속에는 도둑놈만 있더냐. 마음속에 순경이 있어야지! 그 순경이 항시 엄히 너의 잘못을 꾸짖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죄받을 짓만 하게 되는 법이여.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명심해야 혀’ 하셨다. 하지만 할머니의 바람과는 다르게 못난 손주 놈의 마음속에는 엄한 순경은커녕 방범대원도 두지 못한 것 같다. 단적인 예로 나는 누군가와 쓸데없이 다투는 것이 너무나도 싫다.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다. ‘선천적 갈등기피증’이라고 할까? 옳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도 남들과 갈등이 생기면 그냥 못 본체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나 자신이 손해 보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촘촘할까? 이런 나의 성격은 공직에 들어와서도 변하지 않았고, 업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도서관에서 자료실 운영 업무를 맡고 있을 때였는데, 하루는 어린아이와 아이의 어머니가 도서관으로 급히 뛰어 들어왔다. 누군가 하고 보니 A양과 A양의 어머니였다. A양은 인근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였는데, 평소에 워낙 도서관을 자주 찾는 데다가 성격도 사근사근해서 직원들과 친하게 지냈다. 두 사람은 급히 빌려야 하는 책이 있으니 대출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A양에게 마침 연체가 걸려 있어 대출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A양의 어머니는 오래 연체한 것도 아니니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을 했

다. 하지만 규정상 하루라도 늦으면 그 늦은 일수만큼 대출이 금지되었다.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연체 기록을 삭제하고 책을 대출해 주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A양의 어머니와 피곤하게 다투고 싶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도 모를 일인데, 융통성을 살짝 발휘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의 업무라는 것이 결국 시민을 상대로 한 서비스다. 그것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루어지는 직접 서비스다. 그렇다 보니 필연적으로 친분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A양의 어머니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부탁하기도 한다. 나는 그럴 때마다 큰 문제가 없다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이 별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시민들을 위해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어쩌면 공직자의 덕목에 합당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유야 어찌 됐든 규정 위반은 규정 위반이다. 모든 부패는 작은 규정 위반에서 시작하는 법이다. 공직자가 왜 규정을 지켜야 하겠는가? 바로 규정이 공직자의 부패를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규정에는 판단이 필요 없다. 규정의 준수 여부에 개인의 판단이 들어가면 그 의미와 실효성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바로 그 시점에서 부패라는 곰팡이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업무를 보다 보면 모든 규정을 지켜 가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A양의 경우처럼 살짝 눈감으면 모두가 행복한(?)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공직에서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결국 저 양자 간의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갈등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엄격한 도덕적 잣대와 규정 준수 의식이 필요한 법이다. 규정을 어기고 좀 더 편한 길로 가고 싶을 때 스스로를 꾸짖을 수 있는 무엇. 바로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마음속 엄한 순경’ 말이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추억담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해가 산에 걸릴 무렵이 되었다. 밖으로 나와 보니, 길을 따라 세차게 내려가던 물줄기가 많이 약해져 있었다. 얇전한 고양이처럼 사람을 피해 길옆으로 졸졸졸 흘러 내려갔다. 무릎이 아파 걷기도 힘겨워하시는 할머니는 굳이 손주 가는 길을 배웅하시겠다고 문 앞까지 나오셨다. 눈도 많이 나빠지셔서 멀리 있는 건 다 흐릿하게 보이신다더니, 내가 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아시고는 손을 흔들며 주신다. 아픈 몸으로 저렇게 유난을 부리는 것도 당신의 성정에서 비롯된 것일까? 할머니의 마음속에 있는 그 엄한 순경은 이런 일에도 시시콜콜 꾸지람을 하는 것일까? 노을빛에 발갳게 물든 할머니가

손을 흔드신다. 마주 손을 흔들며 다짐해 본다. 나도 한번 마음속에 순경을 뒤 보자. 아주 엄하지는 못하더라도, 간간하다는 소리 들을 만한 순경 한 명 뒤 보자. 그러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부끄러울 일은 줄어들겠지. 그래. 그렇게 해 보자.